

2019년 10월 20일

시편 19편

- 1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
- 2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 준다.
- 3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 4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 5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 7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 8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 9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 10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 11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 12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알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 13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 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14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태양의 송가(Canticle of the Sun)

가장 높고, 가장 강하고, 선하신 주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축복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피조물들,  
특히 우리에게 낮과 빛을 주는 우리 형제 태양과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양은 공평하게 밝은 빛을 비춥니다.  
오, 하나님, 태양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 자매인 달과 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맑고 사랑스러운 그 빛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형제인 바람, 공기와 구름,  
잔잔한 파도와 모든 날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 자매인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고 겸손하고 소중하며 정결합니다.  
우리의 형제인 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불을 통해 어둠을 밝히십니다.  
불은 밝고 상냥하며 매우 강력하고 강렬합니다.  
우리의 어머니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살아가게 하며,  
다양한 열매와 갖가지 색의 꽃들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철저한 겸손으로 주를 섬깁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1182-1226)